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의안 번호	7927
----------	------

발의연월일 : 2025. 2. 6.

발 의 자 : 김 건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현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중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현승 · 인요한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운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주 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기 위해 흘린 피와 희생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의 취임을 즈음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

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과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분명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지난 70여 년간 양국 관계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동맹국인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미 간 경제통상, 투자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와 함께,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발전해 왔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 첨단기술,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분

명한 인식하에, 본 결의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자 함.